

안타까운 죽음

# ‘강진 義人’ 노점상 흥기 난동 막으려다...

### 장모와 해외여행 앞두고 참변 전남경찰 “의사자 지정 지원”

“장모님을 모시고 낚생 처음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짐까지 다 싸 놔는데...”

지난 15일 강진군 마량면에서 김모(53)씨가 횡간을 휘두른 흥기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최모(52)씨. 그는 16일 장모(77), 아내(52) 등 처가 식구들과 함께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만사위였던 최씨는 여든을 앞둔 장모를 위해 생애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다. 사회복지사 시험을 앞둔 아들(26),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한 둘째 아들(22)과 함께 여행길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으로 최씨 가족은 휴양지가 아닌 장례식장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최씨의 빈소가 마련된 강진군 강진읍 한 장례식장에는 17일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는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씨의 한 직장 동료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일에 나서 말리려고 하겠느냐”며 “평소 가족과 주변인들을 챙기느라 본인 삶이 없었던 분”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처남은 “아이들과 누나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바로 옆 농협으로 들어갔으면 더 큰 사고가 날까봐 다른 쪽으로 가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마량면 한 농협 앞에서 비로 포대를 옮기던 중 농협 맞은편에서 김씨가 A(여·52)씨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최씨는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김씨를 설득했다. 김씨는 “참견하지 말라”며 위협했지만 최씨는 그냥 돌아설 수 없었다. 최씨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김씨와 1분 여간 대치했다. 하지만 흥분한 김씨는 “왜 상관하느냐”며 평소 특별한 감정도 없던 최씨에게조차 흥기를 잔인하게 휘둘렀다.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전남지방경찰청과 강진군은 최씨의 의사자 지정을 도울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에서 고인이 범행을 말리려다가 희생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만큼 유족분들이 민간인 의사자 지정에 신청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조의를 표했다.

강진읍 군수 등 강진군 직원들도 지난 16일 장례식장을 찾아 합동 조문과 함께



지난 15일 오전 강진군 마량면 한 노상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53)씨가 흥기를 들고 최모(52)씨를 쫓아가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말리던 최씨를 200여m 쫓아가 인근 터미널에서 흥기로 살해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CCTV 캡처〉

성금을 전달한 뒤 의사자 지정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진경찰은 지난 15일 흥기를 휘둘러 최씨와 A씨 등 2명을 살해하고, 경찰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김씨를 살인 등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노점상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24분에 마량면 한 농협 앞

노상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량면 자신의 집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 2명에게 흥기를 던져 중상을 입혔다.

강진=김정민기자 kki@ /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광주·전남 장기결석 초등생 37명

### 교육부 전수조사... 전국 220명 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어린이가 광주·전남에만 3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11명·전남 26명이며, 전국적으로는 220명에 달한다.

17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섰다.

장기결석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오는 2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광주 11명·전남 26명 등 전국 22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동부교육지원청 3명, 서부교육지원청 8명 등 총 11명으로, 이들에 대

한 소재 확인을 마쳤다. 다행히 아동학대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시교육청 관계자는 “11명 모두 소재는 확인됐으며 학대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흡수콜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남은 무안교육지원청 11명 등 총 26명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경찰과 읍·면·동사무소와 공조해 이들에 대한 방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생 소재가 불분명하면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준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도 학생 소재가 불분명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양숙자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도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와 교사로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주민센터와의 공조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7억 쫓돈 사기’ 60대 女 징역 4년 선고

### 광주지법... 남편은 집유

18명의 쫓돈 17억여원을 가로챈 60대 계주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계원을 모집해 쫓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홍모(여·6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남편 김모(75)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를 조직해 운영하는 중 쫓돈을 임의로 쓰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원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17억4000만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피

고자 일부 피해를 보상했으나 여전히 10억원이 넘는 돈이 피해액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부인 홍씨를 대신해 장부를 작성하고 계금을 관리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봤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3년간 순번에 따라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속성 ‘순번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 등으로 수십억원의 빚을 지자 계원들이 낸 돈으로 ‘둘러막기’를 했으며 쫓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화순 孝子’ 노모 위해 밤새 지하수 파다...

### 삼 들고 새벽 4시까지 작업 3m 깊이 흙구덩이 매몰 숨겨

시골집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위해 삼한 자루를 들고서 날이 새도록 지하수 관정을 파던 40대 아들이 흙구덩이에 매몰돼 숨졌다.

17일 새벽 4시께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의 한 주택 마당에서 조모(49)씨가 3m 깊이(너비 1m)의 흙구덩이에 빠져 매몰돼 있는 것을 조씨의 아들(24)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뒤인 새벽 5시55분께 흙더미를 걷어내고 조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매몰 순간을 목격한 아들이 직접 구조에 나섰다. 흙재질이 점성이 약하고 모래와 유사한 마사토(화강토)인 탓에 손을 쓸수록 흙더미가 무너져내리면서 굴착기가 투입된 이후야 구조가 가능했다.

광주에 사는 조씨는 16일 아내(47)와 함께 지난해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어머니(75) 집을 찾아 지붕을 손보는 등 집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굴착기를 동원해 파냈던 마당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시원치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오후 1

시부터 삼 한 자루에 의지해 관정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직장에 다니는 조씨의 아들도 내려와 파낸 흙을 나르며 거들었지만 날이 저물도록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아들과 손자를 걱정하던 노모가 수차례 작업을 멈추지만 부자는 새벽 4시까지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겨울이 불편한 어머니가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마당 뒷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는데다 조씨의 성품도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었다. 3남 1녀 중 막내인데다 평소 자주 가족을 이끌고 어머니를 찾아와 집안 일을 거드는 효자였고, 일을 할 때면 손끝도 아물어 노모는 숨진 조씨를 각별히 아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조씨가 최근 일감(영업용 화물차 운전)이 줄어 시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 이날 작업을 하고 관정을 파내려갔던 것 같다”면서 “요즘 세상에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면 삼 한 자루에 의지해 날이 새도록 그 깊은 흙을 파내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지하수 관정을 파던 조씨가 마사토 재질의 흙더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17일 새벽 화순군 춘양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위해 지하수 관정을 파던 중 3m 깊이의 흙구덩이에 매몰된 조모(49)씨의 상태를 소방관이 확인하고 있다.

〈화순소방서 제공〉

##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금호동 국민은행 건물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시세-2억 5천만원, 급매 1억8천만원

###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만원

###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400만원

###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원

##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